‘3년차’ 키움 이정후가 슬럼프에 대처하는 법

조바심 버리니 부활 3번타자 나에게 딱!

‘천재’는 슬럼프에 대처하는 자세도 남달랐다.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시즌 초 부진을 이겨내고 어느덧 팀 중심 타선에 다시 배치됐다. 미래를 길게 내다보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에게 베테랑 못지않은 여유가 묻어난다. 뉴시스

초반부진 딛고 타율 3할대 복귀
“하던대로 해” 선배들 조언 큰힘
두 자릿수 홈런·20도루 페이스

21세 3년차 야구선수. 20년 안팎 이어지는 프로 생활 전체에 비춰봤을 땐 막 첫 발을 뗀 시기다. 자연히 경험보다는 패기가 앞설 때다. 하지만 이정후(21·키움 히어로즈)는 3년째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신인왕과 태극마크, 골든글러브 등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가며 어지간한 서너 살 형들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 젊은 선수들에게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슬럼프에도 의연해졌다.

이정후는 17일까지 71경기에서 타율 0.315, 5홈런, 30타점, 45득점, 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818을 기록했다. 커리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눈앞에 뒀다. 아울러 도루도 20개 가까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타율 0.355로 ‘컨택 장인’의 풍모를 뽐냈다면, 올해는 해결 능력을 갖춘 타자가 됐다. 이정후는 “어린 시절 ‘언젠가 프로가 되면 타율 0.350을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걸 이뤘다고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타율 0.360, 0.370 등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 매년 달라지고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와 준플레이오프 도중 어깨 관절 와순 파열 부상을 입으며 수술대에 올랐다. 당초 6개월 재활이 예상됐지만 본인의 의지와 트레이닝 파트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지며 개막 엔트리 합류에 성공했다. 그러나 첫 15경기에서 타율 0.230에 그쳤다. 아버지인 이종범 LG 트윈스 야수총괄은 “올 시즌은 망했다는 생각으로 편히 해라”는 조언을 건넸다.

이정후는 “당시는 마음이 조급했다. (김)하성이 형이 ‘하던 대로 하면 모두가 아는 이정후로 돌아올 것’이라고 조언해준 게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야구 인생에서 처음 겪는 슬럼프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경험 덕에 몇 번이고 슬럼프가 찾아와도 여유 있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유의 타격감을 회복한 이정후는 최근 꾸준히 3번타순으로 배치됐다. 리드오프에 머물던 과거와 다르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예상보다 시기가 일찍 찾아왔지만, 언젠가 3번타자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정후 역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훨씬 편하다. 자연히 집중력도 높아진다”며 웃었다.

장 감독은 올 시즌에 앞서 이정후에게 ‘3년은 꾸준한 성적을 내야 자신만의 애버리지(평균)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지금의 성적을 올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정후만의 야구 펼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꾸준하면 5년, 그 뒤에는 7년, 그 뒤에는 10년을 유지해야 한다. 한 시즌이라도 처지고 싶지 않다”며 “나도, 팀의 또래 선수들도 꾸준함을 유지해 올 시즌 전 3강 평가를 입증하고 싶다”는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고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마무리 변신 KT 이대은 “무엇보다 팀 먼저 생각”

KT 이대은

“팀을 먼저 생각해야죠.”

KT 위즈가 마운드 구상을 다소 손질한다. 확실한 선발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외 유턴파’ 이대은(30·KT 위즈)이 마무리 투수로 변신한다.

팔꿈치 통증으로 1군 말소됐던 이대은은 12일 수원 SK 와이번스전에 앞서 1군에 복귀했다. 이강철 감독은 한동안 이대은을 불펜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12일 선발투수 금민철이 1회부터 4실점하는 등 무너지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대은은 박승민 투수코치를 통해 “긴 이닝도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 감독은 그에게 4이닝을 맡겼다. 이후 다시 선발 복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성곤, 주권 등 불펜 자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며 불펜이 다소 헐거워졌다. 결국 이 감독은 15일 이대은에게 불펜행 의사를 타진했다. 이대은은 “팀이 필요하면 언제든 던지겠다”고 각오했고, 1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구원등판해 3이닝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 감독은 18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 앞서 “승부수였는데 (이)대은이가 정말 잘해줬다. 대은이를 이제 마무리 투수로 기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전 만난 이대은은 “어떤 상황이든 팀을 위한 투구만 생각하고 있다. 선발, 중간, 마무리 등 보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1군에서 빠진 동안 몸 상태 회복에만 신경을 썼다. 통증은 전혀 없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대은은 불펜으로 2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건재함을 알렸다. 한편 이대은의 이탈로 빈 선발진 한 자리는 김민수가 채울 예정이다. 고척 | 최익래 기자

“류현진 ‘오락기 야구’하듯 자유자재 투구”

SK-KIA전 찾은 김병현
“자신감 확실하게 느껴져”

“어떤 공을 던져도 통한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전직 메이저리거 투수 김병현(40)은 호투 행진으로 미국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류현진(32·LA 다저스)을 두고 “오락기로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놀라운 제구력으로 완벽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병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MLB)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14경기 평균자책점(ERA) 1.26을 기록 중인데, MLB 전체에서 유일한 1점대 성적 보유자다. 최근 타선의 득점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훌륭한 투구를 펼치고도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지만, 9승1패로 내셔널리그 다승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18일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 경기가 열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김병현은 류현진을 두고 “투구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무기는 자신감이다. 김병현은 “어떤 공을 던져도 통한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MLB에서 몇 년을 뛰고 부상을 당했는데, 건강을 되찾고 ‘내 공이 통한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류현진의 볼 컨트롤을 보면 알지 않나. 오락기로 야구를 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넣었다 뺐다 한다”며 “또 빠르게 던질 때는 빠르게, 느리게 던질 때는 느리게도 던진다”고 감탄했다.

시즌을 마치면 프리에이전트(FA)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다. 류현진은 지난겨울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1790만 달러(약 212억 3835만 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다. 김병현은 “결국 FA의 영향 아니겠나. 조금만 더 오르면 산 정상인데, 내려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올해 목표가 확실하니 그만큼 준비를 잘 했을 것”이라고 시즌 준비 과정에서도 주목했다.

광주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명품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오솔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활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천리를 걸어도 발이 편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100% 이태리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부드럽고 견고하며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신발!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에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릿지창
- 3종 특수 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원터치 락(LOCK) 버튼으로 신고 벗기 편함
- 향균, 방취, 통풍의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 / 악취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특허 제 10-0687107 호)

(특허 제 10-0493138 호)

모델명
올인원 PA1 (블랙)
올인원 PA3 (브라운)

세계적인 브랜드 비버리 힐즈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고 사계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올인원 천연가죽 남성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험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으며 이태리 직수입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하며 부드럽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생산되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제작되고 액션가죽이 아닌 100%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튼튼하여 정장신사화의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파이런중창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솔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였고 인체에 중요한 용천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속시켜주는 기능성 건강 신발로 급 부상하고 있다. 강철같은 와이어를 꼬아만든 원터치 버튼은 최적의 장력으로 발을 감싸주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발끈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신발의 개념을 바꾸는 올인원 남성화는 발의 형태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최적의 보행 조건을 갖춰주고 고급 등산화, 트래킹화가 가지고 있는 방한, 방풍, 방습, 방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최고급 소재로 엄선 제작하였다. 실내에 활동이 많은 분이나 실외에서 운동 및 활동이 많은 분들께 매우 유용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글로벌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NAVER 검색창에 진수테크쇼핑 등 쳐보세요

1결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보장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566-1788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